

특집

## 김대중 화해 사상의 특수성과 보편성

: 이분법의 극복과 '다양성 속의 통일'의 변증법

노명환 (한국외대)

### 국문요약

본 논문은 김대중의 화해 사상을 그가 이분법을 극복하고 다양성 속의 통일의 변증법을 추구한 삶의 철학 속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그의 용서와 화해 사상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그의 종교적 신념 그리고 역사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그의 평화 상생의 삶의 자세 그리고 정치와 정책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그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된 신념, 조국의 평화 통일, 세계시민사회,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구민주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화해 사상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잘 인지할 수 있다. 그가 감옥에서 독서를 통해 깨닫게 된 당시 도래하고 있는 지식 정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쏟아 부은 노력과 대통령이 되어서 실천한 정책들은 참으로 극적이고 감동적이다. 지식 정보 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초연결 사회는 용서와 화해, 평화와 상생의 사상과 실천 없이는 존립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제대로 된 준비와 정책적 실천을 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그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명실 공히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된 그의 화해 사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가 지탄을 받으면서도 실천한 현실 정치적 용서의 문제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김대중, 화해 사상, 상생 평화 통일, 지구민주주의, 지식 정보 사회

## I. 머리말

김대중 화해 사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철학과 그의 모든 정책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핵심이다. 그가 추구한 자유, 민주주의, 공존, 평화, 상생의 사회가 바로 이 화해 사상과 정책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화해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용서와 사랑의 사상, 기독교 신앙을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의 수많은 연설과 인터뷰 및 저작물들은 대개의 경우 어김없이 그의 용서와 화해 사상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일관된 논리와 체계가 명확하게 흐르고 있다. 그 어느 지점에서든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내용들을 또는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측면을 보기가 힘들다. 그 내용들 핵심에는 이분법의 극복과 ‘지속적인 다양성 속의 통일’의 변증법을 추구하는 바가 들어 있다.

필자는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 사상의 보편성을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개념으로 조명하고, 이러한 보편성이 그의 오랜 민주화투쟁의 시련 속에서 용해되고 재구성되는 데서 특수성을 본다. 즉, 보편성은 인류 보편의 용서와 화해에 대한 사상을 뜻하며, 특수성은 이러한 보편성이 그의 시련의 삶과 정치에서 특수하게 융합·구성된 측면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특수성과 보편성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많은 부분 중첩되어 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다양한 관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이다. 둘 사이의 관계는 김대중의 사상에서 중요한 내용인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변증법적인 통합의 과정에 있다.

그의 이러한 용서와 화해 사상이 그의 삶과 정책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몇몇 예들을 가지고 알아본다. 그에게 있어서 이 특수성과 보편성은 고정된 어떤 것들이 아니다.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새롭게 융합적으로 사상의 성격을 이루어 간다. 이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정치·사회 현실에서 무엇을 만들어 내고 무슨 뜻을 내포하는가? 이러한 특수성과 보편성, 보편성과 특수성을 그의 변증법적 통합의 관점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 사상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특수성이 자리 잡게 되었는가? 그가 이해하는 화해 사상의 보편성은 어떠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화해 사상의 보편성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의 용서와 화해 사상의 특수성과 보편성은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들이 현실에서 어떠한 긴장 관계와 조화 과정을 보이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앞에서 일관성을 갖는다고 표현한 그의 용서와 화해 사상을 가능한 그의 여러 자료들에서 도출하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의 사상 체계라고 이해되는 바에 따라 해석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용서와 화해 사상이 그의 ‘정치적 보복을 절대적으로 초극하기 위한 치열한 추구’, 자유, 민주주의, 공존, 평화, 상생의 사상 및 정책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특히 ‘어떻게’ 라는 관점에서 알아본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그의 지구민주주의 개념 및 지식정보 사회를 위한 정책의 의미도 되새겨 본다.

우리 사회에서 그의 용서와 화해 사상과 정책이 일면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기 위해서 전두환과 그 세력에 대한 용서 문제의 논란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수성과 보편성의 충돌이라는 차원에서 이 논란을 파악해 보며,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 사상의 본질적인 가치를 더욱 깊이 조명하고자 한다. 그 가치를 고귀한 국가 사회의 유산으로 계승해 갈 방안을 고민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또한 그 용서와 화해의 사상과 정책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현재의 우리가 용서와 엄정한 신상필벌(信賞必罰)의 변증법 과정에서 해야 할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고의 이 작은 분량의 논문에서 이 방대한 내용들을 당연히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이 흐름의 큰 핵심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자료로서 특히 김대중 전집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김대중에 의해 기존에 출간된 저작물들을 포함하여 감옥에서의 단상 메모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다 이 전집에 들어 있다.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김대중 전집이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 II. 김대중의 삶과 정책에서 보는 화해 사상의 보편성과 특수성

김대중의 한결같은 용서와 화해의 사상 그리고 실천의 삶과 정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무엇이 이러한 그의 사상과 삶 그리고 정책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을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 우리는 이들을 아래와 같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그의 용서와 화해 사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분법적으로 잘라 말하기가 힘들면서도, 또한 분명히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변증법적인 상호작용과 통합의 과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이 가운데서 그의 시련의 삶과 정치에서 구성된 특수성 측면에 더욱 집중하여 조명한다.

## 1. 삶과 정책에서 나타나는 일관되고 한결같은 용서와 화해 사상의 보편성

김대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용서와 화해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가졌다. 그 신념은 삶과 정책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사상체계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전제 조건은 용서와 사랑이었다. 김대중은 이러한 측면을 1980년 육군교도소에서 사형수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홍걸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통해 명문화한 바 있다. “용서와 사랑을 거부해 가지고는 인간 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성취할 수 없다.”<sup>1)</sup> “용서는 모든 사람과의 평화와 화해의 길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를 해야 한다.”<sup>2)</sup> 이러한 그의 신념은 일생을 관통하는 철학이었다. 그의 용서와 화해 사상의 보편성을 이루었다.

1985년 미국 망명 생활에서 귀국한 후 출간한 《행동하는 양심으로》<sup>3)</sup>의 서문에서 김대중은 그의 용서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신조를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이와 같이 국민과 나의 양심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반면 이러한 나의 투쟁이 우리를 박해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그리스도의 참 정신에 비추어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박해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일이 없다.”<sup>4)</sup> 이 글에

1) 김대중, 『옥중서신』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0), 27~28쪽.

2) 위의 책, 31쪽.

3) 이 책은 1973년 김대중이 일본에서 출판한 『독재와 나의 투쟁』, (일본 광화당(光和堂) 출판사, 1973)이 1985년 『행동하는 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한국 금문당 출판사에서 출판된 것이다. 당시 독재정권의 정부로부터 납본필증을 받을 수 없어서 원제목인 『독재와 나의 투쟁』으로 하지 못했다. 내용은 같으며 [개정판 서문이 추가되었다. 이 책의 개정판이 2009년에 다시 출간되었다.

4)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Ⅱ, 제20권,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8쪽.

서 그는 또한 귀국 길 전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수천 명의 교포들 앞에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운동을 굽히지 않고 전개하고 민주화 이후에는 어떠한 정치 보복도 수행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음을 밝히고 있다. 아래 절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바와 같이 이보다 이전 시기의 상황에서도 그는 시련을 받아들이고 박해자를 용서하는데 한결같음을 보여주었다.<sup>5)</sup>

김대중은 그의 대통령 재임 시기 사형을 한건도 집행하지 않았다. 그는 특별 사면을 통해 9명의 사형수를 무기 징역으로 감형시켰다. 그는 사형제도에 동의하지 않았다. “나는 원칙적으로 사형폐지론자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권리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다시없이 선한 사람으로 개과천선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목숨을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한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그 범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sup>6)</sup> 이와 같이 그는 항상 ‘같은 인간으로서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다.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잘못을 저지르면서 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치와 그리고 공산 치하에서 기독교 종교 신앙으로 인해 감옥살이와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도 슬기롭게 극복해낸 루마니아의 목사, 리처드 워브란트(Richard Wurmbrand)의 다음과

5) 위와 같음; 노명환,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남한과 서독의 정치·사회·문화적 토양」 『역사문화연구』 제75집 (2020), 153-154쪽.

6) 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서울: 김영사, 2009), 83-84쪽;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20권,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323쪽.

같은 말을 예로 들면서 이 점을 여러 곳에서 강조했다. “만일 내가 일생 동안 품고 살아온 사악한 마음의 비밀, 남에게 발견되지 않은 갖가지의 잘못된 행동들이 스크린에 드러난다면 나의 아내조차 나와 같이 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sup>7)</sup> 김대중은 이러한 내용을 앞에서 언급한 둘째 아들, 홍업에게 보내는 같은 편지에서도 쓰고 있다. “나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이다. 만일 내가 일생에 남 몰래 저지른 나쁜 일과 마음에 품었던 악한 생각을 하느님 앞에, 혹은 군중 앞에 영사막이 비치듯이 비친다면 과연 나는 얼굴을 들고 남을 볼 수 있으며 그러고도 남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까?”<sup>8)</sup>

이와 같이 그의 용서의 사상은 인간이 인간을 벌할 수 없고 온전한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그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한다. “당신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sup>9)</sup> “하늘 아래 의인(義人)은 없다.”<sup>10)</sup>와 같은 예수의 말씀을 김대중은 자주 인용했다. 그는 인간이 의무로서 갖게 되는 ‘용서’의 덕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 어떤 자선이나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sup>11)</sup> 각 사람은 관계 맺기와 과정 속에서 존재하고 끊임없는 변화 속에 있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의 잘못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의 몇몇 예들에서 우리는 그의 삶과 정책을 통하여 그의 용서와 사랑, 화해 사상과 실천이 이처럼 일관되고 한결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그의 용서와 화해 사상과 실천의 보편성의 기

7)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위의 책, 321쪽.

8) 김대중, 『옥중서신』, 27~28쪽.

9)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321쪽.

10) 위와 같음.

11) 위와 같음.

본 틀을 이루고 있다.

## 2. 김대중의 용서와 사랑 및 화해 사상의 배경에 대한 이해와 특수성

### 1) 신앙심과 예수의 제자로서의 길

그가 이해하기에 그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예수의 생애는 죄지은 인류의 대속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인간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인류를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부활하였다. 이것은 김대중의 믿음과 신앙의 핵심이었다. 그는 예수의 제자 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의(義)를 위해 시련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의 박해자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했다. 이러한 그의 행동과 삶을 당대는 아니더라도 역사를 통해 하느님이 가지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그의 신앙과 신념은 또한 그가 시련을 이겨내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

우리는 용서와 일벌백계를 위한 신상필벌 사이의 어려운 지점을 김대중의 다음의 언급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직 하느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적 초인만이 역사를 통해 영원한 승리자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이 집행됩니다. 도조 같은 전쟁 범죄자에게는 교수형이 처해집니다.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실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러한 일을 집행합니다. 하느님의 법률과 사람의 법률 사이의 갈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커다란 숙제입니다.”<sup>12)</sup>

이러한 고뇌 가운데서도 그는 다음의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에 서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의롭다, 나에겐 죄가 없다는 태도로 증오와 심판자의 교만 속에서 남을 처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sup>13)</sup> 그에 따르면 공존 속에서 정반합(正反合)의 변증법이 실현되도록 해야 했다. 죄는 청산하고 그 원인이 되는 구조와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용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지 그 죄악과 나쁜 제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sup>14)</sup> 그는 다음과 같이 또한 강조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그것을 무기로 휘둘러서 나쁜 짓을 합니다. 그 무기를 빼앗아 버리면 마치 삼손에게서 털을 뽑아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력해집니다. 그 사람을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기만 하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힘박에는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보통의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sup>15)</sup> 이러한 논리에서 그는 용서를 못하는 것을 정치 보복으로 이해했다. “그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는 부끄러운 보복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sup>16)</sup> 이 인용문에서 보는 바, 그의 종교적 신조, 박해 등에서 신상필벌의 심판을 정치적 복수로 보는 그리하여 용서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그의 사상의 특수성이 자리 잡고 있다.

12) 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83쪽;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323쪽.

13) 위와 같음.

14)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321쪽.

15) 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115쪽.

16) 위와 같음.

김대중에게 있어서 용서와 화해 사상의 보편성이 그의 시련의 삶과 정치 속에서 정치적 복수를 초극하여 평화와 공존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특수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즉, 예수의 제자 된 자로서의 보편적인 종교적 의무와 신념이 정치 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용서와 화해의 특수성을 구성하고 있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보편성의 측면에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상필벌, 가해자의 용서 구함이 전제될 수 있다. 김대중의 특수성은 실존 속에서 이러한 보편성을 넘어서는 구성의 과정으로 귀결되었다.

용서란 죄지는 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런데 김대중은 위에서 소개한 이유로 먼저 용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가 이러한 특수성의 신념을 실천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례들을 볼 수 있다. 김대중은 1973년 8월 일본 동경의 한 호텔에서 한국중앙정보부의 사주를 받은 괴한 청년들에 의해 납치되어 바다에 수장될 뻔 했다. 그는 후에 철저히 사안을 조사하여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중앙정보부와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용서의 뜻을 밝혔다.

가장 절박한 상황인 1980년 9월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사형 구형을 받았을 때, 그는 최후 진술에서 그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일관되게 “정치 보복 없는 국민 화해”를 주장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용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sup>17)</sup> 그는 이 최후 진술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던 소수의 유신세력과 다수의 민주화 운동 세력 간에 정치적 보복의

17)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1』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10), 421~422쪽; 관련 자료: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관련 최후진술 (1980년 9월 13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9권. 광주항쟁과 사형선고를 넘어 신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다. 1979년 11월-1982년』, 212~218쪽.

약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대단히 우려했다. 그리하여 용서가 없을 때 국가와 사회가 분열될 수 있고, 그 결과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음을 내다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이 최후 진술의 끝 부분에서 자신의 동지들인 공동 피고들에게 정치적 보복 없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키도록 당부하는 유언을 하였다.<sup>18)</sup>

그가 예언한 1980년대의 민주주의 회복은 1987년 6월 항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때 그는 그를 박해하고 죽이려했던 전두환과 그의 세력을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야 했다. 김대중은 1998년 대통령이 되어서 그를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전두환과 그 세력을 사면하고 용서했다. 이는 김대중의 입장에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민주주의와 평화·상생이라는 자신의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많은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러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두환과 그의 세력은 김대중만을 박해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1979년 12·12의 군 하극상을 일으키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전방에 있는 군부대를 빼내어 이 하극상에 참여하게 한 국가적 범죄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1980년 5·17 쿠데타를 일으켜 국권을 찬탈하고, 김대중 등 민주인사들을 체포·구금·고문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가공할 죄명을 씌웠다. 광주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을 폭도로 몰아붙이고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하면서 잔인한 진압을 했다. 집권기 내내 인권을 탄압하고 폭압의 독재정치를 했던 국가·사회적 범죄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김대중의 이들에 대한 용서가 국민들의 큰 반발을 산 것은 당연했다. 필자는 이를 용서와 화해에 대한 김대중의 특수성과 일반적인 보편성의 충돌지점으로 본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고의 IV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18) 위와 같음.

## 2) 박해받은 자로서 정치적 보복에 대한 경계

현실 정치적으로 그는 독재가 횡행하는 시기에 민주화에 헌신했고, 외세와 이념의 대결, 냉전에 의해 국가가 분단된 시기에, 특히 북한 공산주의자에 의한 한국전쟁이 있는 후 시점의 반공을 국시로 하는 독재정권하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했다. 그러한 평화 통일 신념과 활동 때문에 그는 수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또한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때로는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혀 심적 고통을 당하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이러한 때 김대중은 예수의 생애를 거듭 되새기고, 자신의 신앙의 길을 성찰했다. 그러면서 현실 정치적으로 복수의 악순환을 우려하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위해 고심했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시련을 겪는 그가 정상적으로 법에 따른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수의 감정에 의한 정치보복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라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복수의 악순환이 이어질 경우, 민주주의는 불가능하고 구성원들이 증오와 복수의 염원으로 서로 죽이고 피해를 주는 잔인한 일만 반복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국가와 사회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대의의 운동을 펼친 김대중은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서 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자신의 복수 감정을 단호히 억제하고 실행하는 그의 어떤 정상적인 단죄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복수로 보일 수 있고, 그것은 복수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국가와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용서를 하면 그만큼 사회와 국가가 평화와 상생의 힘을 얻고 성숙해 질 것으로 그는 보았다.

그가 복수의 악순환을 처절하게 경험한 것은 한국전쟁의 시기였다. 김대중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비참한 한국전쟁을 통해 뼈에 사무치게 느끼게 된 것은, 당시 무엇 때문에 동포들끼리 그토록이나 심하게 싸움질을 해야만 했던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서로를 죽고 죽이는 살육전을 되풀이해야만 했던가 하는 점이다. (중략)

어쨌든 나는 한국전쟁을 통해 국토의 평화적 통일과 전쟁의 절멸(絶滅), 그리고 민족의 화해가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임을 절감했다.<sup>19)</sup>

같은 민족끼리 사상과 정치의 다름 속에서 이러한 복수의 악순환은 형언할 수 없는 비극의 경험과 기억, 트라우마로 그에게 자리 잡았다. 그가 보기에 이 시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분노와 증오와 복수의 감정에 사로 잡혀 그렇게 했다. 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고 절대 선의 입장에 서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았다. 그 현장은 그저 복수와 살육 전쟁의 악순환만이 있는 아수라장이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이러한 경험과 결심이 그로 하여금 정치의 길에 나서게 했다.<sup>20)</sup> 그는 평화와 용서, 화해, 교류, 협력의 통일만이 국가와 민족의 살길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이데올로기, 자신의 입장을 절대 선으로’ ‘타인의 생각과 행위를 절대 악으로’ 보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의 이분법이 무서운 것이었다. 그는 저 멀리 조선 시대의 당쟁의 비극을 이러한 이분법의 사고와 행동에 의한 복수의 악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했다.<sup>21)</sup>

당쟁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도 김대중은 용서하고 공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함을 거듭 자각했다. 이러한 자각과 실천 행동과 삶은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 사상의 특수성이라 말할 수 있겠다.

19)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32~33쪽.

20) 위의 책, 33쪽.

21)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9권. 광주항쟁과 사형선고를 넘어 신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다. 1979년 11월-1982년』, 226쪽.

## 3) 김대중의 용서를 위한 노력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그런데 그러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정책적 고려만 가지고 가능하게 될 수 없었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그릇이 되어 있어야 했다. 그는 종교적 신앙과 역사에 대한 믿음 속에서 수양을 통해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수양을 통한 감정을 초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것이 김대중의 특수성이기도 하다. 1980년 육군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둘째 아들 홍업에게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점을 말했다.<sup>22)</sup> 인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점 중에는 ‘나도 죄인이다’ 하는 생각, 미움과 복수심을 간직하고 살면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깨달음,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길에 대한 깨달음 등이었다. 특히 ‘신앙과 수양을 통해 진정으로 강하게 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깨달음과 수양이 중요했다.<sup>23)</sup> 그는 이러한 수양을 위해 종교적으로, 성·세속의 논리적으로, 생활 실천적으로 진력했다. 그는 강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그 강함은 이러한 수양과 생활 실천으로 얻어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김대중의 수양과 생활실천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는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민주화와 평화 통일의 길을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집요한 노력을 펼쳤다. 신앙심 속에서, 예수의 길을 보면서, 역사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면서, 국민을 보면서 그러한 자신을 만들고 성숙해 가고자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식을 쌓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수양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이러한 그의 용서의 철학과 실천 의지를 사

22) 김대중, 『옥중서신』, 27~28쪽.

23) 김대중, 『옥중서신』, 27~28쪽; 노명환,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남한과 서독의 정치·사회·문화적 토양」, 150~151쪽.

형수로서 감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던 한 인간, 정치가 그리고 민주화 운동가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갖 거짓의 조작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자신의 가정과 인생을 파괴한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찌 말과 신념처럼 쉬웠겠는가? 이것은 수양되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것은 지식, 지혜, 정치적 판단력과는 다른 또 하나의 차원이다. 김대중의 이러한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특수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세계의 위대한 정치가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특수성이다.

그가 링컨을 위대하게 보고 존경하는 큰 이유도 링컨의 용서할 줄 아는 능력에 있었다.

나는 이 용서와 화해의 교훈을 링컨에게서 얻었습니다. 그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 사람입니다. 가장 철저히 적을 관용으로 대한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인들의 마음은 남북을 가릴 것 없이 증오와 울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남부 사람들은 여전히 복수에 불타 있었고, 북부 사람들도 남부 사람들을 징벌해야 한다며 증오와 분노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자기가 속한 북부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서까지 반대하면서 남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노예제도를 폐지했으면 됐지, 사람을 처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링컨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다 (Malice toward none, Charity for all)···’<sup>24)</sup>

김대중은 링컨이 남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보복을 단행했다면 남과 북은 영원히 분열되었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링컨이 무엇보다도

<sup>24)</sup> 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77~78쪽;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319~320쪽.

이 점 때문에 용서의 길을 택했을 것으로 보았다. 이 길을 위해서 링컨은 목숨까지 바쳤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김대중은 링컨의 이러한 용서의 정치를 “분단의 위기를 넘기고 오늘과 같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게 한 큰 원동력”<sup>25)</sup>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링컨에 대한 최대의 경의를 표했다.<sup>26)</sup> 링컨에 대한 경의는 김대중 자신의 앞길과 미래의 정치에 대한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다.

### 3. 용서·화해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변증법과 정치 지도자의 책무·사명감

#### 1) 화해, 민주주의, 통합과 평화를 위하여

민주화를 위한 조건으로 그는 용서의 필수성을 생각했다.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누가 독재 정권을 내놓겠는가? 복수의 악순환에 사로잡혀 정치가 이성을 잃으면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말하면서 자유를 말살하는 독재를 하게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다.”<sup>27)</sup> 그런데 독재 정권 하에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에 의하면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복수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했다. 1980년의 시점에서 그는 2000년까지는 대한민국이 용서와 화해의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채우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sup>28)</sup>

국가 사회의 통일성과 안전을 위해서 정치지도자로서 결단을 내려야

25) 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78쪽.

26) 위와 같음;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20권,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320쪽.

27)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위의 책, 33쪽.

28)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9권. 광주항쟁과 사형선고를 넘어 신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다. 1979년 11월-1982년』, 226쪽.

하는 측면을 그는 중시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이미 앞에서 인용한 바 있듯이 링컨에게서 얻는 교훈이 컸다고 말한다. 김대중은 이처럼 보편적인 용서의 리더십으로서 링컨의 예를 든다. 링컨은 내전 중에 쌓인 증오와 적대 문제를 국가의 통일과 안위를 위해 용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김대중은 국가의 통일과 안위를 위해, 복수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용서하고자 했다.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이고 이는 용서의 보편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링컨은 그 싸움에서 김대중처럼 박해를 받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었다. 그것이 쉽지 않은,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문제였지만, 김대중이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을 정치적 보복을 초극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 하고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었다. 이 측면에서도 우리는 김대중의 특수한 상황을 더욱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보편성 속에서 김대중의 특수성을 보다 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개인과 사회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하여

가해자의 가해는 피해자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갖게 한다. 트라우마를 만든다. 용서와 화해는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화해는 그 치유의 결과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자의 용서는 화해를 이루고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 이 치유 과정과 결과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사죄가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사죄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한다. 그런데 김대중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용서를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가해자의 사죄를 조건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자신의 경우가 그렇고, 자식들에게 그러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는 데서 그랬다. 사회의 원리로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용서의 덕을 권했다. 그는 이것을 기독교의 사랑의 계

명·사명과 연결했다. “사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에 대한 사랑, 또 하나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전자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자기 자신을 고독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사랑이다. 오직 천주님을 만유(萬有)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랑만이 행복과 영생에의 길이다.”<sup>29)</sup>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과 용서로서 마음의 고통, 트라우마를 치유하기를 권했다. 그에 따르면 박해와 피해를 받았던, 현재 받고 있는, 앞으로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복수의 감정을 계속 끌어안고 산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했다.<sup>30)</sup> 이러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수양을 통해 큰 그릇이 되어야 했다. 이 또한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 사상의 보편성 속의 특수성이었다.

---

29) 김대중, 『옥중서신』, 26쪽.

30) 위의 책, 28쪽.

#### 4. 인간과 자연 사이의 용서와 화해를 통한 지구민주주의와 지식 정보 시대의 초연결 사회를 위한 동력과 가치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 사상은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르렀다. 그의 화해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그의 화해와 민주주의 사상은 총체적으로 지구민주주의(Global Democracy)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지구민주주의 개념과 정책은, 특히 그의 지식정보 사회, 즉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념에 대한 비전과 융합되어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했다. 다음 장에서 설명할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陰陽)의 관계처럼 서로 같으면서 다른 것들의 상호 작용과 융합이라는 그의 변증법 사상의 적실성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바탕을 둔 지구민주주의 개념에서 그리고 지식정보 사회의 원리에서도 확인되었다. 반도체(半導體, semiconductor)는 전기가 통하고 안통하고의 대립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태가 서로 작용하고 융합하는 것을 한 몸에 담은 물질을 의미한다. 이것이 디지털, 즉 0과 1로 표시된 서로 다른 것의 다양한 조합의 연속(Bit stream)으로 표현된다. 전기가 통하고 안통하고의 작동을 각인한 것을 비트(Bit)로 나타내며, 끝도 없이 계속되는 비트들의 다양한 조합의 연속을 비트스트림(Bit stream)이라 부르는데, 그의 변증법 사상의 적실성을 이러한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그의 용서와 화해 사상이 특별히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갖는 의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1) 자연과 인간의 화해와 지구민주주의

김대중은 인간이 자연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생각은 '지구민주주의(Global Democracy)'라는 개념과 정책으로 정립되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환경정책과 함께 공약으로

신인도주의를 제시했다. 1998년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환경부를 신설했다. 그는 인간이 그동안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이분법의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해왔음을 지적했다.<sup>31)</sup> 그는 이를 통렬히 반성하고 상호 작용에 의한 변증법적인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고 제창했다. 인간은 자연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면서 조화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친환경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했다. 인간이 그동안 자연을 함부로 대한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라고도 보았다.<sup>32)</sup> 김대중은 이에 반해 동양의 자연관을 가지고 신인도주의에 기초하여 그동안의 서양 문화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를 일신하면서 융합적으로 지구민주주의(Global Democracy)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sup>33)</sup> 그는 동양 사상에 기초하여 인간을 위한 도구로서 자연이 아니라 그 자체의 생명권에 주목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그는 “이 지구상에 있는 들짐승·날짐승·물고기·공기·물·흙·나무와 들판에 자라나는 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들의 생존권을 사랑과 속죄의 심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sup>34)</sup> 이렇게 자연의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동안 인간이 자연에게 향한 자세와 행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를 동양의 사상과 융합하여 지구민주주의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5)</sup> 그에 따르면 지구민주주의는 아시아의 천인합일(天人合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람을 하늘처럼 대해야 하는 경천애인(敬天愛人), 사인여천(使人如天) 등의 우

31)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서울: 한길사, 2009), 405~408쪽.

32) 위와 같음.

33) 위와 같음.

34) 위와 같음.

35) 위의 책, 407~408쪽.

주와 인간의 조화 사상에 기초해야 했다. 이는 불교에서의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모든 만물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萬有佛性)’는 사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구민주주의는 또한 “국가 내에서의 자유와 정의의 완전한 실현”을 피하고, “제3세계의 모든 민족과 국민에게 선진국과 똑같은 자유와 번영과 정의를” 실현해야 했다.

당시 이 지구민주주의는 추상적인 이상향처럼 들리기도 했으나, 인류가 전 세계적 코로나 전염병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2019-2020년의 현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히 다가온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간이 자연에 대한 가해로 인해 자연이 인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과 야생 동물 사이에 자연이 완충 역할을 제대로 못해 줌으로써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후 변화가 다양한 양태로 지구의 생존과 인간의 삶을 커다랗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계 공동체적인 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통한 지구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김대중 사상의 적실성이 큰 울림을 주고 있다.

## 2) 지식 정보 시대의 초연결 사회와 용서·화해의 가치

김대중이 보기에 지식정보 시대의<sup>36)</sup> 초연결 사회에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은 필수적이었다. 왜냐하면 초연결 사회에서 증오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다양한 형태의 극히 위험한 화들이 나와 전체 사회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초연결 사회에서 좌절과 증오에 찬 사람들이 ‘너죽고 나죽자’하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무리 나를 잘 보호하고 산다

<sup>36)</sup> 그의 시대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부르던 것을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해도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좌절과 증오를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했다. 즉, 이러한 초연결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나를 위하는, 즉 이타주의적(利他主義的) 이기주의(利己主義), 그리고 나를 위해 남을 배려하는, 즉 이기주의적(利己主義的) 이타주의(利他主義) 정신이 중요했다. 이러한 초연결의 지식 정보,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의 사상과 지구민주주의 개념을 실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대중이 보기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 통신의 기술과 구조가 지구민주주의 실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지구민주주의 사상은 4차 산업혁명을 지구를 위한, 친환경의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를 현 시점의 논리로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2019-2020년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초연결 사회의 문제점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하면 삼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그래서 각 국가는 국경을 통제하고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의 세계화와 초연결 사회에서는 초국적인 국제 공동체의 차원에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사이에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통해 협력의 길을 열어 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세계 공동체 차원에서 초연결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또한 앞에서 설명한 김대중의 지구민주주의(Global Democracy)의 개념이기도 하다. 김대중은 지구민주주의와 지식 정보 사회를 상호 깊은 연관 속에서 보았다.

김대중은 1981년 청주교도소에서 토플러(Alvin Toffler)의 『제3의 물결』을 읽으면서 지식 정보 사회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후 그는 이와 관련한 저작들에 대한 독서와 사색

을 더욱 집중적으로 하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를 설계해 갔다.<sup>37)</sup>

그가 청주교도소 독방에서 설계한 인류의 미래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는 세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했고, 지식 정보 사회의 강국이 됨으로써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1997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토플러, 게이츠(Bill Gates), 손정의 등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자문을 구했다. 재임 기간 동안 한국의 지식 정보 사회를 위한 괄목할 업적을 남겼다. “나는 정보화 시대에 한국을 지식과 정보의 강국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오래된 꿈이었다. … 지식과 정보의 강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비로소 그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sup>38)</sup> 수한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 경험, 분단과 한국전쟁의 내전 등의 비극을 겪은 한국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계의 용서와 화해 평화와 상생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을 꿈꾸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힘을 지식 정보 강국에서 찾았다.<sup>39)</sup>

용서와 화해에 의한 공존·평화·상생·공동번영의 남북관계 개선도 이러한 국력의 신장과 함께 추구했다. 김대중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정남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21세기에는 세계화, 지식 정보화 도전을 이기지 못하면 어떤 민족과 국가도 비참해집니다. 문화 창조력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식 산업 시대에 중요한 지식과 교육 기반, 문화 창조력을 물려받았습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고 유산을 잘 활용한다면 선진 민족이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민족 역량을 소모함으로써 퇴보할 것입니다.”<sup>40)</sup>

37)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10), 159쪽.

38) 위의 책, 159쪽.

39) 위의 책, 438~439쪽;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 제4권.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으로 국격을 높이다. 1999년 12월~2000년 5월』, 317쪽.

다른 한편에 그의 여러 저작들과 정책들을 보면 그는 이 초연결 사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를 인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이 초연결 시대를 위해 그의 용서와 화해의 철학의 당위성을 확신하고, 이를 실천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상상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는 이 지식정보 시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엄정한 도전에 대한 인류의 창의적인 응전의 힘을 믿었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는 사람이 주어진 도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응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보통신 기술에 의거하여 인류에게 주어진 초연결 사회는 유용한 득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식정보 사회를 위해 인류가 최선을 다하면 오웰이나 헉슬리가 예견한 그러한 인류 사회의 파괴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음을 그는 확신했다.<sup>41)</sup> 이렇듯 그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한 지식 정보화 사회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인류의 노력과 헌신이라는 창의적 응전의 전제와 함께 평등, 안정, 개성, 자유, 정의의 실현을 내다보았다.

그는 지식 정보 사회의 도래에서 대립과 모순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시대로, 영토 등 유형적 물질의 하드웨어 시대로부터 소프트웨어 시대로 인류 역사의 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했다.<sup>42)</sup> 각종의 다양성들이 조화를 이루는 즉, '다양성 속의 통일'이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구공동체 시대가 올 것으로 보았다. 이 지구촌 공동체는 차후 그가 정립하는 지구민주주의의 개념과도 연계될 것이었다. "21세기에는 문자 그대로

40)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273~274쪽.

41) 김대중, 『옥중서신』, 109쪽.

42)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361~362쪽, 노명환, 「초국가주의 민주주의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 정책: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EU연구』 제30호 (2012), 169쪽에서 재인용.

지구촌 시대가 올 것입니다. …… 인류는 공통의 세계어로 대화하게 될 것이며, 인간의 대량적인 이동이 행해져서 어느 나라든지 각 민족이 혼재하고 국제결혼이 성행할 것입니다. 민족의 특성은 보존되고 문화는 존중되겠지만, 이기적 민족주의 시대는 가고 세계주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sup>43)</sup> 따라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소위 앞에서 언급한 이기주의적 이타주의, 이타주의적 이기주의의 생활 자세가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양성의 가치를 더욱 크게 강조했다. “이러한 때에 세계가 더불어 잘사는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성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sup>44)</sup>

그는 대통령으로서 지식 정보 사회를 구축해 가면서 평화와 조화, 상생을 위해 구체적으로 초연결 사회의 다양한 융합의 정책들을 구상하고 추진해 갔다. 예를 들어, 세계 각 지역 간의 그리고 남북한 간의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평화적 협력 관계의 상호 파급효과를 일으키는 정책을 생각했다. 이러한 관광산업을 구조적으로 다시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 시킴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하였다.<sup>45)</sup>

그는 이러한 지역간 상호 융합과 파급효과를 사례로서 금강산 관광 산업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를 다시 지식 정보 기술과 연결하여 초연결 사회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43) 김대중, 『옥중서신』, 107~108쪽, 노명환, 「분단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정책의 상호관계: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적용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주주의 이념과 정책, 분단극복 방안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歷史學研究』 제49집 (2013), 230쪽에서 재인용.

44)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2』, 361~362쪽.

45)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 제7권. 지식정보화 강국의 꿈을 이루다. 2001년 8월~2002년 2월』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54쪽.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강산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시작한 금강산 관광이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터 주었던 사실을 여러분께 환기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남북 간에 재차 합의한 금강산 육로 관광과 남북을 잇는 철로 개설이 추진되면 남북 교류와 남북 간의 관광교류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관광을 통한 남북 간 교류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물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 각 나라가 관광에 필요한 지식·정보·기술·인적 자원을 공유하고 교류함으로써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인류번영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의 시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관광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sup>46)</sup>

김대중은 북한을 국제 사회로 인도하여 국제 공동체 차원에서 남북 간에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식 정보 초연결 사회에서 더욱 용이하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지식 정보 사회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한국이 강국이 되면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도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었다.

이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사회에서 남북이 김대중이 말한 지구민주주의를 공동으로 추진해 볼 수 있겠다. 남북한 간의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방역과 친환경 정책 협력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동북아·동아시아 차원의 방역협력 공동체도 추진할 수 있다. 전염병이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추진은 그 실효성이 더욱 커질 수 있겠다. 접경지역에서의 공동 방역은 노력 여하에 따라 공동의 자연보호를 동반할 수 있다. 즉, 김대중 개념의 지구공동체를 공동으로 실현해 갈 수 있다. 그런데 방역에서 그리고 친환경 정

46) 위의 책, 54~55쪽.

책에서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러한 점을 이 기술들을 통한 코로나 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과 전염경로 추적에서 이루는 성과에서 확인하고 있다. 접경 지대에서 공동의 친환경 정책을 위해 동식물의 유전자 감식과 보존을 위해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방역 및 환경 협력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측면들은 보안 및 정치적 악용 등 예민한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응전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초연결 사회 속의 융합적인 협력은 새로운 남북한관계와 세계적 국제관계를 위해 더욱 발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소프트웨어 차원에 기반한 것으로 그동안의 강대국들에 의존하는 하드웨어(토지, 노동, 자본) 구조에 대한 분명한 혁명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김대중은 『제3의 물결』에 자극을 받아, 하드웨어 프레임은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으로 바꿀 수 있다고 인지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는 이 소프트웨어 패러다임에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행사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확신했다. 이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공존·평화·상생의 지식 정보 사회를 제대로 실현하고, 이러한 지식 정보 사회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더욱 진정으로 깊이 실천해가면서 달성할 수 있는 한국의 주도에 의한 인류의 미래 목표들이었다.

그는 2002년 월드컵 개최 시기에도 IT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첨단 기술과 융합하고자 하였다.<sup>47)</sup>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제 경쟁력을

47)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전집 I. 제7권. 지식정보화 강국의 꿈을 이루다. 2001년 8월~2002년 2월』, 48~49쪽.

새로운 차원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그 목표는 앞에서 설명한 다양한 민주주의와 평화적 협력의 파급효과와 융합효과를 꾀하는 것이었다.<sup>48)</sup> 이렇듯 그가 그 많은 시련 속에서 추진해 온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운동은 지식 정보 사회의 새로운 차원과 환경에서 다양한 융합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실현될 수 있었다. 그것은 일본과의 관계 등 이웃 국가들 그리고 세계적인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렇듯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 사상과 실천의 유산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보물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데이터들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가는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사회에서 그의 용서와 화해, 평화·공존·상생의 철학은 더욱 빛나게 발현될 것이다.

### Ⅲ. 김대중의 변증법적 진화 사상과 용서 · 화해 · 공존 · 평화 · 상생

이미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김대중은 이분법적인 사유와 그에 따른 행동을 가장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앞에서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 사상을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지만, 사실 이 또한 실제에 있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변증법적인 통합 과정에 놓여 있다.

김대중에 따르면 사람들은 정반합의 변증법적인 상호 작용과 변화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가져야 했다. 그래서 그는 주역의 음양이론이 ‘음이

<sup>48)</sup> 위의 책, 51~52쪽.

면서 양이고, 양이면서 음인' 우주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것에 주목했다. 이러한 사유와 철학을 통해 인간은 '나와 다른 것은 또한 나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했다. 그에 따르면 '같은 것이면서 서로 다른 것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세상의 원리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주역의 음양이론, 헤겔의 변증법,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관, 페이야르 드 샤프랭의 창조적 진화론의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들의 사상들이 함께 김대중에게 녹아들어서 '창조적이고 변증법적인 통일의 철학'<sup>49)</sup>으로 정립되었다. 그가 생각하는 통일은 '정적이고 기계적인 통일이 아니라 모순과 대립 속에 조화 발전하는 변증법적 통일'<sup>50)</sup>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순과 대립 혹은 조화라는 관계 맺기 속에 존재하며, 이러한 존재 양식은 끊임없는 변증법적 통일의 과정 속에서 변화되어 갔다. 이러한 그의 사상의 한 가운데 용서와 사랑, 화해와 공존, 평화와 상생의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변증법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는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 사상을 이러한 변증법적 통일의 사상에 입각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해방정국에서 그는 헤겔의 변증법의 차원에서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았다. 그는 이러한 그의 역사관·세계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고했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사유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그는 여러 곳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해방정국에서 많은 젊은 지식인들의 화두가 유심론과 유물론이었다. 그는 이때에 이미 이 두 상극의 변증법적 통일을 생각했다. 1973년 5월 일본에서 펴낸 『독재와 나의

49) 김대중, 『옥중서신』, 33쪽.

50) 위와 같음.

투쟁』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헤겔의 변증법 철학이 논하는 바와 같이 유심론과 유물론의 「정(正)」과 「반(反)」이라는 상극의 대립이, 통합 및 초월하는 경지, 즉 새로운 「합(合)」의 철학을 낳게 하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성립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찾게 되는 동시에 정신적인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되돌아 보건데 그러한 나의 생각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확신한다. 이처럼 20여 년 전에 생각한 나의 사상은 지금까지 전혀 흔들림이 없을 뿐 아니라, 갖가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방향 설정을 하게 하는 지침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갈 작정이다. 나는 나의 이같은 사고방식을 내 나름대로 ‘통일철학(統一哲學)’이라 부른다.<sup>51)</sup>

이러한 김대중의 변증법적 통일 철학을 우리는 그 뒤에도 10여년이 지난 1980년 12월 7일 육군교도소에서 그가 셋째 아들 홍걸에게 쓴 편지에서 또한 확연히 볼 수 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과 그의 세력들에 의해 조작된 혐의에 의해 당시 사형수로서 복역 중이던 김대중은 이 편지에서 다양한 철학 이론들의 상호 대립관계와 조화로운 변증법적 통일의 방향에 대해 대학에 가서 철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고등학생 아들에게 설명했다. 철학 논쟁의 “이러한 대립은 대체로 한 면의 진리로서 양자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통일은 단순한 통일이 아니라 본체론은 진화와 향상의 창조적인 관점에서 통일해야 하고, 그 통일이 정적이고 기계적인 통일이 아니라 모순과 대립 속에 조화 발전하는 변증법적 통일이어야 한다고 본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창조적이고 변증법

51) 김대중, 『독재와 나의 투쟁』 (일본: 광화당(光和堂) 출판사, 1973);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25쪽; 노명환,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남한과 서독의 정치·사회·문화적 토양」, 145~146쪽에서 재인용.

적인 통일의 철학'이 장래에 나아갈 철학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sup>52)</sup> 위 두개의 인용문을 통해 우리는 김대중에게 있어서 변증법적 사유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점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김대중은 특히, ‘모순과 대립 속에 조화 발전하는 변증법적 통일’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세상이 다양하게 서로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고, 이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했다. 서로 다른 것은 대립관계에 있을 수 있었다. 그는 대립과 모순의 관계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조화와 융합, 상생의 통일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sup>53)</sup>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지식 정보 사회의 진행 속에서도 그는 이러한 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그의 관점들은 ‘지속적인 다양성 속의 상호 작용과 통일’이라는 역동적인 변증법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서로 다른 것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고정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크게 경계했다. 그는 서로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작용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 속에서 존재했다. 그는 헤겔의 변증법에서 출발하여 동양적인 음양이론과 결부시켜 ‘같은 것이면서 서로 다른 것이 상호 작용하여 다양성 속의 통일’의 과정에 있는 인간의 삶, 역사, 우주의 원리를 이론화하고 있다.<sup>54)</sup>

52) 김대중, 『옥중서신』, 33쪽; 노명환,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남한과 서독의 정치·사회·문화적 토양」, 145쪽에서 재인용.

53) 김대중의 이러한 세계관을 필자는 ‘끊임없는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역동적인 변증법 개념으로 표현해 본다. 노명환,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남한과 서독의 정치·사회·문화적 토양」, 146쪽.

54) 동양의 음양오행이기의 성리학 이론과 유사성을 보인다. 성리학에서는 이(理)가 음양오행의 기(氣)운동의 주관자인데, 김대중에게서는 변증법적인 진화의

그는 1992년 대선에서 패하고 정계은퇴를 했을 때인 1993년에 출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sup>55)</sup>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주역에 대해 왈가왈부할 만큼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만물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이 있고 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으며 그것이 음양설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즉 흑 속에 백이 있고, 백 속에 흑이 있는 것이지 흑백 양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흑이나 절대적인 백을 고집하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sup>56)</sup> 음양이론을 가지고 이분법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다.

김대중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결과보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생의 의미는 결과보다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의한 관계 맺기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과정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명작 『노인과 바다』를 흥미롭게 읽었다고 했다. 김대중에 따르면 바다에서 대어를 낚은 노인은 상어 떼와 싸웠다. 온갖 싸움을 하여 대어를 끌고 육지로 왔다.

---

주관자가 하느님이다. 필자는 이를 ‘성리학적 구성주의’ 개념 속에서 설명해 보았다. 노명환, 「성리학적 구성주의’ 관점과 복잡계 이론으로 본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 사상 및 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 『역사문화연구』 제67집(2018).

55) 1998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의 제목으로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1993년에 출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는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20권,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의 259~437쪽에 걸쳐 게재되어 있다.

56)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20권,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309쪽; 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60쪽; 노명환,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남한과 서독의 정치·사회·문화적 토양」 141~142쪽에서 재인용.

그때의 대어는 뼈만 남았다. 김대중은 이 고기잡이의 결과로서 뼈만 남은 대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어를 낚아 육지로 가져오는 노인의 투쟁의 과정이 진정한 삶이었다고 보았다.<sup>57)</sup> 그런데 그가 보기에 이러한 인생살이는 음양이론에서와 같이 서로 같은 것이면서 다른 것들의 정반합의 변증법적 통일의 과정이었다. 이것은 ‘모순과 대립 속에 조화 발전하는 변증법적 통일’ 과정이었다. 인간들이 모인 사회의 역사가 그러했다. 그리하여 다음에 설명할 김대중이 이해하는 주역의 음양이론에서 보면, 화가 복이 되고(轉禍爲福), 복이 화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김대중에게 있어서 이 변증법적 작용 과정에는 하느님의 뜻이 작용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김대중이 좋아한 페이야르 드 샤르댕(Pierre Teilhard de Chardin)<sup>58)</sup>의 변증법적 진화론의 신학과 연결시켜 이해해 볼 수 있다. 김대중은 그의 변증법적 통일 철학을 설명한 앞의 삼남 홍길에게 보낸 편지에서 페이야르 드 샤르댕의 변증법적 진화론의 신학에 대해 읽도록 권했다. 그 외 여러 곳에서 김대중은 페이야르 드 샤르댕의 변증법적 진화론의 신학 관점들을 소개한다. 특히, 그는 1980-1981년 사형수로서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로 큰 고통을 받았고, 기도와 독서·사색을 거듭해 가면서 페이야르 드 샤르댕의 창조적 진화론의 신학을 통해 답을 찾았다고 했다.<sup>59)</sup>

57)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20권,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308쪽; 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 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58쪽.

58) 샤르댕 신부는 1881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1911년 신부가 되고, 지질학자이자 고생물학자로서(종교학, 과학) 활동하다가 1955년 미국에서 사망하였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지질학, 고생물학 연구를 하였고, 북경원인을 발견하였다.

59)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20권,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400쪽; 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 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143쪽.

김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페이아르 드 샤르댕의 창조적 진화론(creative evolution theory)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페이아르 드 샤르댕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유의지에 의한 서로 관계 맺기와 상호 작용, 변화의 통합적 과정, 즉 모순과 대립 속에 조화 발전하는 변증법적 통일 과정 속에 있다. 이 지속적인 상호 작용과 융합의 과정은 끊임없는 소체화(corpusculization) 생산 과정에 해당한다. 소체화는 서로 다른 것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작은 단위의 완전체들이다. 이 과정은 끊임없는 물질의 복잡화(complexification of matter) 과정, 즉 서로 다른 것들의 지속적인 관계 맺기의 복잡성 증식을 초래한다. 그는 자유의지에 의한 이 서로 다른 것들의 상호 작용과 융합의 과정을 사랑으로 표현했다. 여기에서 사랑은 자유의지에 의해 현신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면서 상대와 융합하는 것을 말한다. 샤르댕은 남녀가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결합하여 자식을 낳듯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 맺기, 즉 상호작용과 융합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낸다고 보았다. 자유의지에 의한 이러한 과정이 창조적 진화이고, 이 진화의 끝 지점에 오메가 점( $\Omega$  point)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오메가 점에 이르기 까지 자유의지에 의한 이 진화의 모든 과정을 신이 관장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 오메가 점이 또한 예수 재림의 하느님 시대의 도래를 뜻했다. 인간은 이 진화의 과정 속에서 시간과 공간으로 끊임없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우주를 나타내 주는 우주의 소체다. 인간과 우주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서 변증법적인 상호 작용 속에 존재한다. 그는 이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이 신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물질과 생명의 차이는 이러한 창조적 진화의 정도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물질과 생명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다만 다른 진화의 단계에 놓여 있을 따름이라고 보았다.<sup>60)</sup>

이러한 페이아르 드 샤르댕의 창조적 진화론에 기초하여 김대중의 변

증법 역사 사상과 신학 사상, 그리고 그의 신앙이 통일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관계와 과정, 변증법적인 상호 작용, 신의 섭리라는 개념들이 두 사람의 사상에 공히 주 개념으로 들어 있다. 김대중은 샤르맹의 창조적 진화론을 가지고 자신의 사상을 설명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사상의 일부로 만들었다고 보아진다.<sup>61)</sup> 그러면서 페이야르 드 샤르맹의 이론에 따라 자신의 고난에 찬 활동과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방향을 잡았다. 아내 이희호에게 보내는 1981년 3월 19일자 옥중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오메가 포인트(Q point)에의 진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크리스천의 인생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생각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sup>62)</sup>

페이야르 드 샤르맹에서 보듯 삶의 제 관계와 과정 중에는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 중요한데, 이 지점에서 김대중은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관과 연결하여 사유한다.<sup>63)</sup>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응전의 원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생성되어 간다. 그래서 주어진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와 함께 어떻게

60) 노명환,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남한과 서독의 정치·사회·문화적 토양」, 146~147쪽; 테야르 드 샤르맹 저, 양명수 옮김, 『인간 현상』 (서울: 한길사, 1997); 테야르 드 샤르맹 저, 이병호 옮김, 『물질의 심장』 (왜관: 분도출판사, 2003); 테야르 드 샤르맹 저, 이병호 옮김,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 (왜관: 분도출판사, 2003); 김성동, 「페이야르 드 샤르맹에서의 인간의 문제」 『철학탐구』 제29집 (2010).

61) 노명환,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남한과 서독의 정치·사회·문화적 토양」, 147쪽.

62) 김대중, 『옥중서신』, 57쪽.

63)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20권,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308쪽; 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 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58쪽; 김대중, 『옥중서신』 94쪽.

새롭게 도전하고 응전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 변증법의 변화 과정은 이러한 도전과 응전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김대중은 주어지는 도전에 대해서 어떠한 응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토인비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응전의 방식과 과정이 역사의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 응전의 방식과 과정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가치를 강조했다. 즉, 그는 가장 최선의 응전은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다양성 속의 통일 원리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김대중의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의사소통 행위이론, 공론장의 개념과 연결 속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겠다.<sup>64)</sup> 그는 또한 민주주의 발전 자체가 도전과 응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파했다.<sup>65)</sup> 그는 이러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모순과 대립 속에 조화 발전하는 변증법적 통일'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역사 인식을 그는 '창조적이고 변증법적인 통일의 철학'<sup>66)</sup>으로 명명했다. 그의 신앙과 역사관의 통합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가 그렇게 큰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데 있어서 신앙의 힘과 변증법적인 역사에 대한 믿음이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역의 음양 원리의 지혜와<sup>67)</sup> 함께 떼이야르 드 샤르댕과 토인비가 김대중의 시련의 삶과 방향을 지탱해 주고 이끌어 준 두 스승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공존하면서 대결하고, 대결하면서 공존하는 모양을 띤다. 그래서 그는 공산주의와 북한과 공존하

64)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위의 책, 93-99쪽; 노명환, 「분단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정책의 상호관계: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적용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주주의 이념과 정책, 분단극복 방안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9호 (2013).

65) 위의 논문; 김대중, 『옥중서신』, 93-99쪽.

66) 위의 책, 33쪽.

67)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309쪽; 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60쪽.

면서 경쟁하고, 경쟁하면서 승리할 생각을 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와 오로지 공존하며 오로지 대결해 나가야 하는데도”,<sup>68)</sup> 독재자들은 정 반대의 길인 극단적인 증오와 전쟁의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면에서 비판했다. 이것이 그가 반독재 투쟁의 시련 속에서 발전시킨 햇볕정책 사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보는데 천착했다.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부분이 있다.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이다. 부분과 전체는 상호 작용하면서 변증법적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은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즉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아야 한다.<sup>69)</sup> “숲도 보고 나무도 보되, 숲과 나무를 따로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상호연관 속에서 통합해서 보는 변증법적 사고를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그래야만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성공률을 높이고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sup>70)</sup>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사물을 전체와 부분을 같이 보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서 예측하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일의 변화를 보려고 애씁니다.”<sup>71)</sup> 부분의 관점에서는 ‘정의’이나 전체의 관점에서는 아닐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정의’이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닐 수 있다. 그 역의 경우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모든 것을 우리는 두 차원의 변증법에서 볼 수 있어야 하겠다. 모순과 대립 관계의 두 차원이 상호 작용하며 변화해 가면서 조화로운 통일의 합을 이루어 내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68)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Ⅱ, 7권, 납치와 연금 속에서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르다 1972년 10월~1973년』, 90쪽.

69) 김대중,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62~71쪽.

70) 위의 책, 66쪽.

71) 위의 책, 106쪽.

따라서 김대중에 따르면 증오와 사랑, 단죄와 용서는 이분법을 극복하고, 이러한 변증법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수행되어야 했다. 그는 용서와 일벌백계 사이, 용서와 화해의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에 신의 뜻에 의한 이러한 전체와 부분 사이의 변증법적 진화 과정을 통해 조화로운 통일의 합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용서와 화해는 단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끊임없는 변증법적 변화 생성의 과정이며 미래로의 진화 방향이었다. 이러한 그의 ‘지속적인 다양성 속의 통일’의 변증법 사상 체계 속에서 우리는 그의 3단계 통일 방안, 햇볕정책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북한 관계, 일본과의 관계의 상호 이해와 상호 용서 상호 작용 화해 공존, 평화 상생을 이루어 가야 했다.

그는 일본과 상호 이해와 용서 그리고 화해를 통해 상생의 미래의 길을 열어가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독재와 나의 투쟁』을 일본에서 일본어로 출판했다.<sup>72)</sup> 김대중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특히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1998년 10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 일본 총리 오부치 사이의 공동선언으로 구체화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 한국을 개방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상호 작용하여 한국의 한류를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sup>73)</sup> 그것은 한국의 민족문화와 일본문화의 상호작용과 변증법적 통합을 통해 세계문화를 일구어 가는 방향일 수 있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용서와 화해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충돌과 조화, 변증법적 통일 과정이 필

72)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20권.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16쪽.

73) 노명환,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남한과 서독의 정치·사회·문화적 토양」, 152쪽.

수적으로 작동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본의 반성을 더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었다. 반드시 반성이 있는 연후에만 이러한 화해와 상생의 과정을 전개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 사상의 특수성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일본에 과거 제국주의 시대를 동경하고 한국을 혐오하는 뿌리 깊은 세력들이 많이 있음을 볼 때, 이러한 김대중의 용서·화해·평화·상생 사상의 특수성이 본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시간을 두고 인내하면서 가야할 길이겠다.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변증법적 통일의 길이다.

#### IV.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 사상에 대한 평가와 보편성과 특수성의 변증법

앞에서 설명한 김대중의 용서의 철학과 실천에 대한 최대의 비판은 전두환과 그 세력을 용서한 것 때문에 대두되었다.

첫째로, 일벌백계(一罰百戒)의 뜻으로 신상필벌(信賞必罰) 함으로써 역사의 정기를 세우고 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들은 하나를 벌함으로써 백계의 교훈을 세우는 뜻으로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죄인들의 뉘우침이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하고 용서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컸다. 감상적인 용서의 철학에 따라 그러한 죄악의 무서움에 대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깨우는데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혹은 나약한 정치적 입지 때문에 용서를 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김대중은 자신의 보다 탄탄한 정치적 입지 마련을 위해 전두환과 그 세력을 용서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와 비판까지 들어섰다. 지역감정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남권을 끌어안기 위해서, 비토세력인 군부 세력과 타협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서, 용서라는 것을 활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오해와 비판들까지 제기 되었다.

실제 오늘날 전두환과 그의 세력은 자신들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기 보다는 자신들의 행위를 왜곡된 반공주의 등으로 정당화하고, 민주화 노력을 조롱하면서 희생자들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 유유자적 골프를 치면서 노후를 편하게 사는 것을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듯하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을 자신들의 무죄에 대한 증명이라도 한 것처럼 활용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느끼는 트라우마와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다. 그런데 이미 용서가 이루어진 마당에 더 이상 단죄할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한다면 누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두려움을 갖겠는가? 전두환과 그 세력에 의해 피해를 보고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 사회의 정기가 흔들리는 일 아닌가? 일벌백계를 위한 신상필벌 행위가 반드시 정치 보복의 행위가 되는가? 엄중하게 법에 따라 죄를 묻는 것이 복수 행위인가? 모든 엄정한 단죄행위는 그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예방 행위 아닌가? 엄중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법에 따라 벌을 주면서 잘못된 점을 고쳐 가는데 꼭 복수의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필시 국가와 사회의 분열이 일어나는가? 하는 원망 섞인 문제제기들이 계속 되고 있다.

둘째로, 김대중이 혼자서 용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보는 점

이다. 이는 김대중이 용서를 독점했다고 비판하는 측면이다. 즉, 전두환과 그의 세력에 대한 단죄와 용서는 김대중의 몫만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관점이다. 그 중에는 예를 들어, 5·18 희생자들의 몫이 컸다고 본다. 직접 피해자들, 국민들이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할 충분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비판점이다. 이러한 용서는 당시의 죄상을 밝히는데도 어려움을 주고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의 해소, 배상과 보상을 어렵게 하는 측면으로 보여 지기도 했다.

그러나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러한 보편성 측면에서의 문제제기와 비판점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의 철학과 실행의 특수성 측면들을 보다 면밀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 독재와 분단의 시대에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며 오랜 기간 동안 처절한 박해와 시련을 겪었던 그가 정치 보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별히 노력한 것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군부 독재 정권 하의 군법재판에서 죽음이 내다보이는 사형 구형 후 최후 진술의 내용을 우리는 냉철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의 기독교 신앙심과 일생을 관통한 용서와 화해의 철학이 이러한 그의 시련의 삶 속에서 구성된 특수성 측면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의 경험과 조선시대의 당쟁에 대한 비판 속에서 정치가로서의 길을 걸으며 복수의 악순환이 없는 화해와 상생의 장래 비전을 가꾸어 간 그의 삶의 궤적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사회의 분열을 염려하며 화해와 통합을 추구하는, 이것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하는 그의 삶을 주의 깊게 통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편성으로 인지되는 그의 용서와 화해의 철학이 신앙인의 길, 정치지도자의 길, 각 시기별 상황판단,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의 사명감과 융합되어 있는 특수성의 일관성과 구조를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즉, 다시 말해 우리는 전두환과 그의 세력에 대한 김대중의 용서를 둘러싸고 전개

되는 국민들의 김대중에 대한 비판을 용서와 화해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변증법을 추구하고 실현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되는 시점은 물론 그로부터 20년 후 그가 대통령이 되는 시점에서도 지금과 비교하여 정치와 사회가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다. 일벌백계의 신상필벌을 안정되게 하기에는 쿠데타와 그동안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구조가 온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시점에 있지 않았다.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는 개혁의 길에 있었다. 우리는 그의 사려 깊은 용서의 철학, 그가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사명감과 각 시기별 상황 판단 기준 등에 대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용서와 화해의 정책과 정치를 위해 이것이 민주화와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시대에 현명한 방법이었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 그가 링컨의 예를 들면서 링컨을 존경하는 측면을 크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생을 통해 용서의 철학을 간직한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 단죄를 보다 정치적 보복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의 삶과 민주화 운동 속에서 각인된 용서와 화해 철학의 특수성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른 한 측면을 또 진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대중처럼 아무런 죄 없이 거짓과 조작에 의한 죄명으로 그 오랜 기간 동안 처절한 박해를 받고 시련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 그 당사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무리 그러한 용서의 정책적 입장을 갖더라도 현실적으로 인간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여 국정을 논할 만큼 그것을 해냈다. 그것은 깊은 수양과 마음의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의 경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숙성으로

스스로 치유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일생을 통해 추구해온 용서의 철학을 실천해 왔다. 이것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고도의 수양이 없으면 보통의 인간으로서 이러한 마음의 뜻을 실천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귀한 역사에 대해, 그 교훈에 대해 그 뜻깊은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귀중한 역사의 유산으로서 간직해 가고 두고두고 국가·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비판의 내용들과 지점들을 통렬히 새기고 역사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가야 한다. 이 길에서 단죄와 용서 관련하여 소외된 직접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단죄의 시기를 한정 지어서는 안 된다. 독일에서 나치에 대한 단죄의 시효를 무기한으로 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효를 무기한으로 하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김대중의 특수성을 새겨보고, 그 위대함을 살리고, 일벌백계를 위한 신상필벌은 국민의 몫으로 완성해 가야 한다.

김대중의 용서가 옳았느냐 틀렸느냐를 이분법적으로 따지기보다 이렇게 변증법적 종합으로 정리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주역의 음양의 이론과 변증법의 역사관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에 대한 비판과 원망보다 본 논문에서 살펴 본 그의 진정성을 새기고 심판의 작업을, 과거사 청산의 작업을, 역사의 정기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 특히, 역사의 정기 부분을 우리가 완성해 가야 한다. 용서와 화해는 단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변화 생성의 미래 방향이다. 부족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용서와 화해는 도덕적인 큰 행위만이 아니라, 현실 사회적으로 공존과 평화의 세상, 민주주의와 상생을 위한, 새로운 창조와 진보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용서와 준엄한 심판을 이분법의 틀에서 보지 않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김대중의 사상에서처럼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 용서 속에 준엄한 심판이 들어 있을 수 있고, 준엄한 심판 속에 용서가 들어 있을 수 있다. 김대중 시기에 용서를 함으로써 일벌백계를 위한 신상필벌이 좌절되었는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이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는가? 이를 통해 전두환과 그 세력은 현재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어느 경우보다도 고통스러운 온갖 굴욕을 다 받고 있는가? 즉, 인간 기본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본능적인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국민들은 두고두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기존 방식의 일벌백계를 위한 신상필벌의 방법과 그 결과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과 과정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풍부한 의미들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김대중이 이해한 주역의 음양 이론과 헤겔의 변증법,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의 원리 같이 용서와 준엄한 심판이 상호 작용하면서 과거 청산을 미래 위해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김대중은 대립과 모순의 관계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조화와 융합, 상생의 통일 효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sup>74)</sup> 이러한 변증법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용서와 준엄한 심판의 변증법을 완성해 가야 하겠다. 페이야르의 드 샤르맹의 변증법적 진화론으로 오메가 점을 향해 가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대중에게서 나타나는 용서와 화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그리고 우리의 보편성 이해를 변증법적으로 융합하면서 전두환 시대에 대한 과거사 청산을 시점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실행·완결지어 가야 하겠다. 이를 다른 모든 과거사 청산의 모델로 세우고, 민주주의·공존·평화·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대중이 추구한 3단계 통일방안과 햇볕정책, 지구민주주의,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한국의 지식정보 강국의 꿈을 계승하고 실현해 갈 수 있어야 하겠다.

74) 김대중, 『옥중서신』, 33쪽.

## V. 맺음말

본고를 통해 김대중의 일관된 용서와 사랑, 화해 사상의 보편성 그리고 불굴의 실천의지와 실질적인 실천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용서와 화해 사상은 그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과 오랜 민주화 및 평화통일운동으로 인한 박해와 시련의 생애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이 특수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 사상의 보편성과 그의 특수성은 끊임없는 변증법의 상호 작용의 과정 속에서 융합적으로 변화·생성되어 갔다.

그의 용서와 화해 사상은 크게 보아 동양의 전통적인 음양사상의 우주 철학 같은 성격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를 헤겔의 변증법 철학,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의 문명사관, 페이야르 드 샤르댕의 변증법적 진화론의 신학과 융합하면서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갔다. 그의 기독교 신앙이 이러한 기초위에 서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우주의 존재 그 어느 것도 고정된 것은 없고 상호 작용하면서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존재한다. 그는 용서와 화해가 이러한 우주의 원리 속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용서와 화해는 민주주의, 공존, 평화, 상생의 세상을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된다고 말한다.

그의 국내 정치적 용서와 화해의 실천, 북한과 화해·협력의 햇볕정책,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동반자 정책, 지구민주주의 등이 모두 이러한 그의 용서와 사랑, 화해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변증법적 진화의 과정 속에서 그는 인간 세계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조화로운 자연과 인간 사이의 용서와 화해, 소통, 사랑의 지구민주주의를 추진했다. 그의 지구민주주의에서 용서와 화해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끊임없는 변증법으로서 변화·생성의 역동성을 기본 원리로 가졌다. 그는 특히, 지식 정보

사회의 도래에 제대로 응전함으로써 이러한 지구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본고의 IV장에서 서술한 대로 전두환과 그 세력에 대한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의 특수성과 국민들의 보편적인 문제의식과 이견도 지구민주주의의 이러한 변증법적인 역사의 역동성 속에서 해소되고 승화되어야 한다. 이를 현재와 미래의 우리가 실천하고 완성해 가야 한다. 즉, 용서와 화해, 민주주의, 평화와 상생의 길을 위한 김대중의 몫과 국민의 몫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최상의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용서와 화해가 지속적인 엄정한 단죄와 함께 변증법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와 미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해가야 한다.

수평적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한 민주투사로서, 정치가로서 과거 자신을 그토록 박해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큰 그릇으로 용서하면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 그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한다. 김대중의 용서와 화해 사상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이 둘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인식하며 사회적으로 폭넓게 실현해 갈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현재는 물론 미래의 고귀한 유산으로 정립해 가면서 사회의 공공재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용서와 단죄의 종합적인 효과를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평화, 민주주의, 상생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2020년 10월 30일 / 심사: 2020년 12월 7일 / 게재확정: 2020년 12월 7일

## 【참고문헌】

- 김대중, 『나의 길 나의 사상』, 서울: 한길사, 1994.
- \_\_\_\_\_, 『김대중 자서전 1』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10.
- \_\_\_\_\_, 『김대중 자서전 2』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10.
- \_\_\_\_\_, 『옥중서신』, 서울: 한울, 2000.
- \_\_\_\_\_, 『김대중이 이희호에게 옥중서신』 1, 서울: 도서출판 시대의 창, 2009.
- \_\_\_\_\_,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젊은이와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바치는 이야기』, 서울: 김영사, 2009.
- 김택근, 『새벽 김대중 평전』, 서울: 사계절, 2012.
- \_\_\_\_\_,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김대중이 남긴 불멸의 유산』, 서울: 도서출판 메디치, 2016.
-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0.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김대중 전집 II, 제7권, 납치와 연금속에서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르다. 1972년 10월~1973년』,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_\_\_\_\_, 『김대중 전집 II, 제9권, 광주항쟁과 사형선고를 넘어 신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을 이어가다. 1979년 11월~1982년』,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_\_\_\_\_, 『김대중 전집 II, 제20권, 김대중이 남긴 정책과 철학의 기록들』,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9.
- 최영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아웃사이드에서 휴머니스트로』,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
- 테야르 드 샤르댕 저, 양명수 옮김, 『인간현상』, 서울: 한길사, 1997.
- \_\_\_\_\_, 이병호 역, 『물질의 심장』, 왜관: 분도출판사, 2003.
- \_\_\_\_\_, 이병호 역,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 왜관: 분도출판사, 2003.
- 김성동, 「테이아르 드 샤르댕에서의 인간의 문제」, 『철학탐구』 제29집, 2010, 67~104쪽.
- 노명환, 「성리학적 구성주의의 관점과 복잡계 이론으로 본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 평화 사상 및 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 『역사문화연구』 제67집, 2018, 121~196쪽.
- \_\_\_\_\_, 「초국가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과 지역공동체의 추구 및 분단극복 정책: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비교사적 연구」 『EU연구』 제30호, 2012, 133~177쪽.
- \_\_\_\_\_, 「반공주의와 화해·협력의 분단극복정책.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대한 비교」, 김동춘 외 공저,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서울: 돌베개, 222~242쪽.
- \_\_\_\_\_, 「분단국의 민주주의와 통일정책의 상호관계: 구성주의 이론과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적용한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주주의 이념과 정책, 분단극복 방안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49호, 2013, 195~238쪽.
- \_\_\_\_\_, 「서신 왕래를 통해 본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관계 1973-1992」 『독일연구』 제40호, 2019, 195~249쪽.
- \_\_\_\_\_, 「김대중과 빌리 브란트의 다양성 속의 통일 사상과 남한과 서독의 정치·사회·문화적 토양」 『역사문화연구』 제75집, 2020, 127~176쪽.

The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of Kim Dae-jung's  
Reconciliation Thought : The Dialectics of “Unification in  
Diversity” and Overcoming the Dichotomy

Noh, Meung-Hoan (Hufs)

Abstract

The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of Kim Dae-jung's Reconciliation Thought in pursuit of the dialectic of unification in diversity and overcoming dichotomy.

This thesis attempted to highlight Kim Dae-jung's thought of reconciliation based on the philosophy of his life in pursuit of the dialectic of unification in diversity and overcoming the dichotomy. His thought of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s based on his insight into the nature of man and society, his religious beliefs, and his beliefs in history. These became the basis of the peaceful attitudes in his life, politics and policies. From this point of view, we can systematically understand his consistent belief in freedom and democracy, peaceful reunification of his country, global civil society, and global democracy that pursues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ity. Here we can well recognize the particularity and universality of his reconciliation thought. His efforts to prepare for the advent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which he learned through books while in prison, and the policies he enforced as president are truly dramatic and moving. He

realized that a hyper-connected society formed through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could not exist without the ideas and practices of forgiveness, reconciliation, peace and coexistence. Thus he strived to make adequate provision and policies, in which he saw that would allow him to practice the values he pursued. Looking at his overall consistent thought of reconciliation, there is a need to grasp the problems of political forgiveness that he practiced despite being blamed.

Keywords: Kim Dae-jung, Reconciliation Thoughts, Co-existence Peace Unification, Global Democracy, Knowledge Information Society

**노명환(Noh, Meung-Hoan)** —————

한국외대 사학과 /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 필자는 독일 현대사를 전공하고 역사학적 관점에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비교하는 연구를 많이 수행해 오고 있다.